

사건의 특성으로 본 외부공간 해석방법

김정호* · 이규목**

*다산 이앤씨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1. 서론

현재까지 조경뿐만 아니라 건축, 도시, 환경 등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에서 공간을 해석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해석의 방법들을 크게 구분하여 보면, 결국 정태적 관점에서 인간행태 중심으로 공간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객관적 시각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느냐 하는 지극히 간단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정태적 입장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공간을 해석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인간과 외부공간사이의 접점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건을 연결고리로 하여 시간성을 고려한 동태적 입장에서 외부공간을 '사건생성 공간'으로 해석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공간을 열려진 시공간에서의 역동적인 구조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미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고찰

1. 사건생성 공간의 특성

사건생성 공간이란 한마디로 매끈한 공간(smooth space)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 매끈한 공간이란 일정한 방향이 없이 서로 다른 방향을 허용하는 유목민(nomad)적 공간으로서 연속적으로 열려있으며, 척도 자체가 장소에 따라 가변화하면서 무수한 방향을 갖는 강도들이 전체를 채우며, 사건에 의해 점유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거리를 가지는 원거리 공간이 아니라 시각조차 촉각처럼 만지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감응하는 촉지적(haptic), 위상학적 공간을 의미한다(Deleuze and Guattari, 1980).

2. 사건의 계열화

사건이 의미를 가지려면 고립되어서는 의미가 없으며, 반드시 어떤 다른 사건과 계열화(series)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하나의 사건은 다른 사건에 의미를 주고 또 다른 사건들과 연속적으로 계열화를 이룸으로써 사건은 역동성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문화가 창조될 수 있는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이정우, 1999). 이러한 사건의 계열화는 정해져 있는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특이성을 가지고 발생한다(Deleuze, 1969).

3. 사건의 지층화

지층화(stratification)되기 이전의 공간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매끈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층화에 의하여 이러한 자유로움은 구속되어 형식이 부여된 고착화된 공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지만 지층화된 공간은 고정되어있지 않고 배치에 의해 끊임없이 탈지층화, 재지층화되어 또 다른 지층으로 회귀한다(Deleuze and Guattari, 1980).

4. 사건의 영역화 과정

영역화(territorialization)는 영역에 묶이는 것, 즉 동일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물의 네발은 땅에 매여 있다는 점에서 땅에 영역화되어 있지만,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부터 앞발이 땅으로부터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되어 손이 되었다. 그러나 땅으로부터 탈영역화된 손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다시 도구에 의하여 재영역화(reterritorialization)되어 버렸다. 이러한 일련의 영역화-탈영역화-재영역화의 과정은 재영역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된다(Deleuze and Guattari, 1980).

공간에서 발생하는 영역화란 바로 물리적 요소가 이

용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용행태가 물리적 요소에 영향을 미쳐 물리적 요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은 탈영역화나 재영역화라고 볼 수 있다.

III. 새로운 공간해석 방법

사건을 매개체로 공간을 해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사건의 계열화와 지층화, 영역화 과정이라는 3가지 개념을 제안하였다.

사건의 계열화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시간화해보는 방법이다. 즉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계열화를 추적하여 동일한 사건, 혹은 전혀 다른 사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열화를 형성하는지를 조사하여 보는 것이다.

사건의 지층화는 사건을 지층이라는 시간적 공간에 떨어뜨리는 작업으로서 사건을 공간화하는 틀로서 사용하였다. 주어진 공간에서 특정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조사하여 동일한 사건들을 분류하여보면, 사건에 의한 하나의 지층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층은 다른 시간대에서는 탈지층화되어 또 다른 지층으로 재지층화될 것이다. 이러한 지층화 작업을 통하여 사건을 지층에 공간화해 볼 수 있다.

사건의 영역화 과정이란 지층화 작업에 의하여 공간화한 사건을 다시 공간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시간적으로 해석해보는 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지층화된 공간속에서 일정하게 영역화된 요소들을 조사하여 이들 요소 중에서 탈영역화나 재영역화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조사하여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

어진 장소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은 영역화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탈영역화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재영역화로 간주하였다.

IV. 사례연구

1. 사례조사 방법 및 분석

1) 사례 대상지 개요

사례 대상지로 선정된 간대메 공원²⁾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옛 전매청 창고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창고를 허물고, 1998년 공원으로 재조성한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근린공원이다. 공원의 면적은 15,170.9㎡(4,592평)에 달하며, 공원부지의 형태는 직사각형 형태의 평탄부지로 연간 이용객이 1,000,000명이 넘고 일일 이용객이 2,000명을 상회할 정도로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공원이다.

2) 조사방법

조사일시는 2001년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평일 4일(수요일2회, 목요일2회), 그리고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6회(토요일2회, 일요일4회), 총10회를 선정하여 아침 6시부터 오후6시까지 12시간동안 시행하였다. 주로 사용한 조사방법은 관찰조사 방법으로서 각 장소마다 발생하는 사건을 매시간 기록하였는데, 조사의 주안점은 이용자 개개인과 이용행태와의 일대일 대응분석보다는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특성과 정황의 기록에 두어졌다.

3) 사건의 분석

10일간의 조사 후 발생한 총 사건의 발생건수는 10,638건수로 조사되었다. 공원내의 사건의 발생건수는 주말이나, 주중이나에 따라 혹은 기상현황에 따라 사건의 발생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사례연구의 사건의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조망하다'와 '이야기하다'가 열흘동안의 조사기간동안 전체 사건 발생건수(10,638건)의 37%(3,936건)를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사결과와는 우리 나라 도시근린공원에서는 아직도 정적이고 관조적인 특성을 보이는 행태가 공원 이용목적의 주된 요인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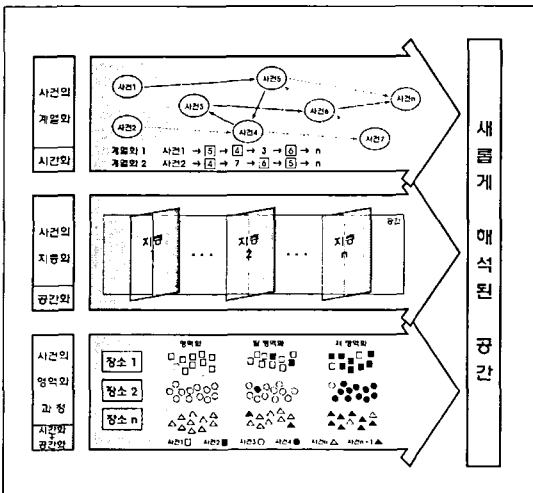


그림 1. 공간해석방법

2. 사례대상지 공간해석

1) 사건의 계열화

사건의 계열화는 단시간에 걸친 사건의 계열화와 장시간에 걸친 사건의 계열화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단시간에 걸친 사건의 계열화를 보면, '이야기하다'와 '조망하다'의 경우, 아침에는 주로 '걷다/달리다', '체조하다'와 같이 운동과 관련된 사건과 계열화를 형성하지만 오후가 되면 '낮잠자다', '먹다/술마시다'와 같은 사건과 계열화를 이루어 아침과는 판이한 계열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걸친 사건의 계열화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시간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사건의 계열화 양상 중에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이용자들은 계속하여 잔디광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팻말을 설치하거나, 교목, 관목을 계속적으로 식재하여 이용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려고 하는 양자간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열화이다. 이는 공원이라는 자연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욕구와 공원을 관조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그림 같은 자연을 유지하려고 하는 관리자와의 괴리현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계열화로 볼 수 있다.

2) 사건의 지층화

사건의 지층화를 통한 공간의 해석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하여 지층의 단면과 평면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지층들의 단면작업을 통하여 아침에는 '걷다/달리다', '배드민턴치다', '체조하다'와 같이 운동과 관련된 사건이 지층의 주요내용을 이루는 운동공원의 특성을

보이는 지층이 형성되며, 오전에는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노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탈지층화되어 어린이공원의 성격으로 재지층화되고, 오후에는 '이야기하다', '조망하다', '먹다/술마시다'와 같은 사건들이 지층을 점유하면서 휴식공원의 성격으로 지층이 변모하는 양상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층화를 통한 공간의 해석을 통하여 근린공원은 하나의 성격으로 정의 될 수 없으며 하루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운동공원-어린이공원-휴식공원과 같이 지속적으로 지층이 변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대별 지층의 평면작업을 통해서 시간대별 주요 사건의 종류 및 사건의 횡수와 사건의 변모 양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는데, 아침 7시 이후 공원의 이용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10시 이후로는 점차 증가하여, 오후 4시에 최고의 이용률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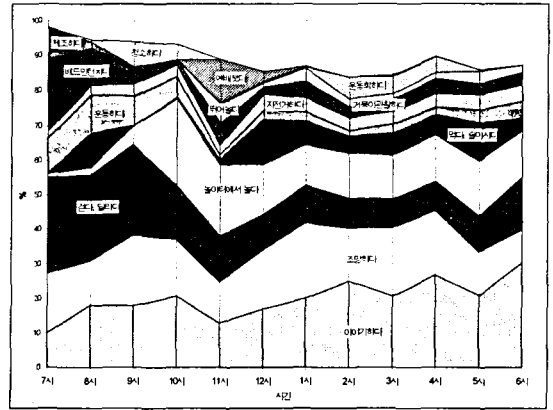


그림 3. 시간대별 지층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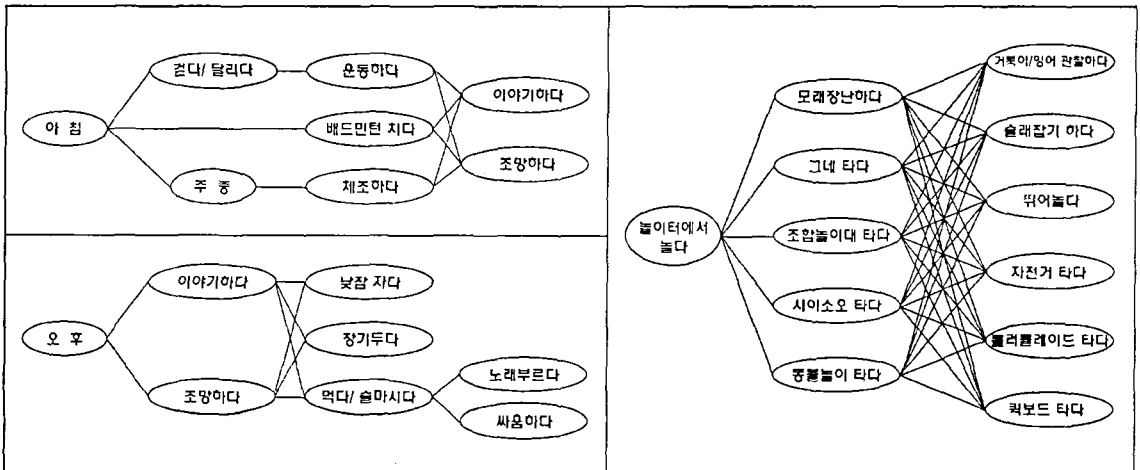


그림 2. 단시간에 걸친 사건의 계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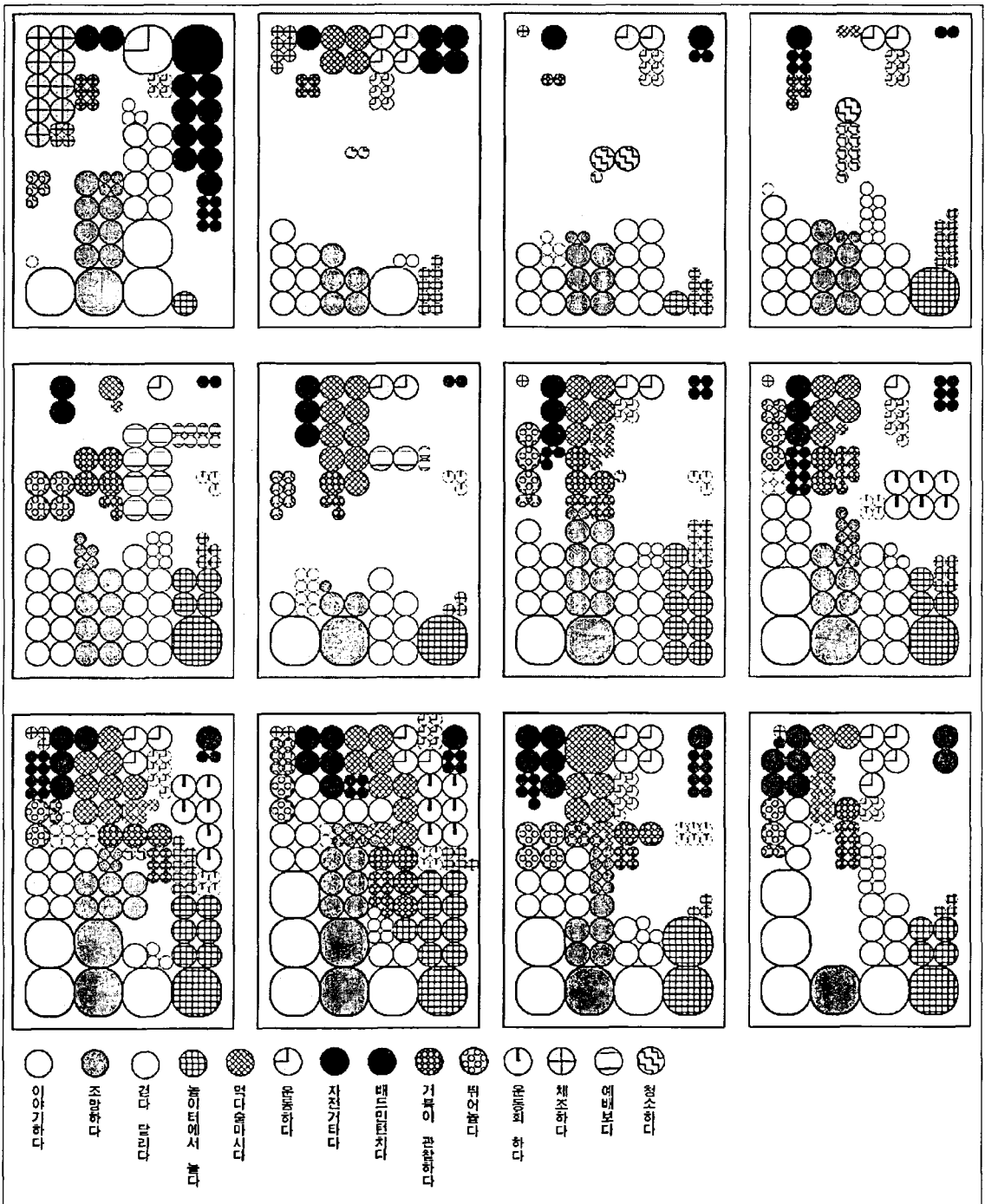


그림 4. 시간대별 지층의 평면

3) 사건의 영역화 과정

사건의 영역화 과정에 의한 공간의 해석을 통하여 대부분의 장소에서 탈영역화와 재영역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³⁾ 그러나 사각정자, 놀이터, 운동시설과 같이 강제적 배치의 성격이 강한 장소에서는 탈영역화나 재

영역화의 현상이 적으며, 잔디광장이나 다목적 광장, 팔각정과 같이 그 용도가 애매하여 자율적 배치의 성격이 강한 경우는 다양한 탈영역화와 재영역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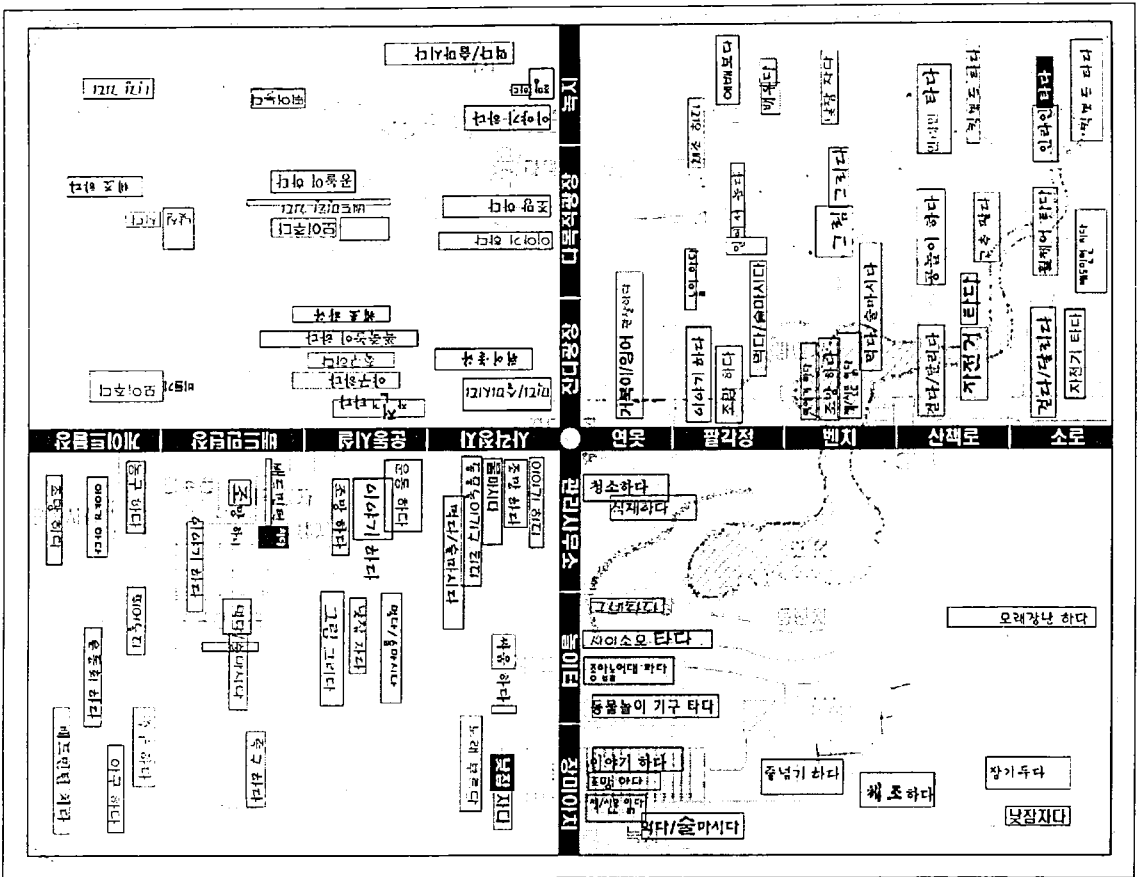


그림 5. 영역화 과정

V. 결론

본 연구는 공간을 고정된 의미의 물리적 환경으로 보지 않고 사건 중심적 견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유연성있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식하면서, 사건의 계열화, 지층화, 영역화 과정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적 언어를 사용하여 공간을 해석해 봄으로써, 시간적 관점에서 공간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프리즘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건의 계열화와 지층화, 영역화 과정으로 공간을 해석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환경-형태적 연구에서는 각각의 형태 자체에만 관심을 보이며, 연결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반면, 사건의 계열화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사건의 지층화는 시간에 따라 변모하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공간을 정태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시간에 따른 공간의 역동적 변화에 주목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영역화 과정은 각각의 장소에 따른 다양한 사건들을 파악하여 이를 영역화, 탈영역화, 재영역화로 범주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이용후 평가시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도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형태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공간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 속에서 생성, 변화하는 사건이다. 본 연구의 의도는 형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것이 아니며, 시간성을 배제한 채, 형태적 의미를 고정적으로 규정하는 형태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형태 결정론적인 사고에서 비결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 형태는 하나의 기능에 의하여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는 다양한 기능의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비로소 형태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
- 주1. 매끈한 공간이란 용어는 후기구조주의 철학자인 들뢰즈에 의해서 개념화된 용어로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역지 『천개의 고원(Mille Plateaux)』에서 공간을 흙이 패인 공간과 매끈한 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 주2. 이전에 답십리 일대에는 자연부락이 원말(원촌), 넘말(월촌), 간테메(중산)의 부락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중산마을의 명칭이 토박이 명칭으로 간테메라고 불리웠다고 하여 공원의 이름을 동대문구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서 간테메로 명명하였다.
 - 주3. 관리사무소에서만 탈영역화와 재영역화 현상이 모두 발생하지 않았으며, 탈영역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재영역화 현상만 발생한 장소는 놀이터와 연못이었고, 다른 장소에서는 모두 탈영역화와 재영역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 1. 이정우(1999) 시뮬라크르의 시대: 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서울: 거름.
- 2. Deleuze, Gilles(1969) Logique Du Sens, 이정우 (역), 의미의 논리, 서울: 한길사, 1999.
- 3. Deleuze, Gilles and Felix Guattari(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trans. Brian Massum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